

나주시, 2026년 을지연습 돌입...비상 대응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점검.도상·민방공·실제훈련 병행



부시장 주재로 최초상황보고회를 열고 을지연습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부서별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의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18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육군 제8332부대 3대대, 경찰서, 소방서 등 7개 기관에서 1천200여 명이 참여한다.

도상(메시지) 훈련과 민방공 대피 훈련, 실제 훈련 등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나주시는 연습 첫날인 18일 충무 시설에서 부시장 주재로 최초상황 보고회를 열고 을지연습 상황과 군 작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나주시의 연습 상황을 비롯해 비상소집 및 전시 작전 편성 훈련 결과 국지도발에 따른 군사 작전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특히 나주시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부서별 임무와 대응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군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점검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화순군, 2026년 '이튼튼 어린이 구강교실' 성료

담양군이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비대면 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담양군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은 2만 3,765세대 4만 3,914명이다. 조사를 통해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는 세대별 대표 1명이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군은 비대면 조사 종료 이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관내 미취학 아동(4~7세)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해 운영한 2026년 「이튼튼 어린이 구강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보건소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실습, 구강건강 생활수칙 안내, 불소바니쉬 도포 등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제22회 통합특별시장배 전국바둑대회 개최

전국 바둑 동호인 한자리에, 이틀간 열띤 대국 펼쳐진다!



제2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배 전국바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바둑협회와 영광군바둑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바둑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바둑을 통한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바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체육으로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해 지역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는 등 스포츠와 지역경제를 연계한 체육행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의 바둑 동호인들이 영광을 찾아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과 편의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현장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유튜브에서 '제2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배 전국바둑대회'를 검색하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바둑 동호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체육 활성화와 외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생활인구 증가율,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아

1분기 방문객 68만 명...전년 대비 6.8% 증가, 경기 부양 나선다

장성군의 올해 1분기 생활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관광, 휴양, 근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1분기 장성군 생활인구는 68만 4534명으로, 지난해 1분기의 64만 1147명보다 6.8% 증가했다. 전국 89개 시군의 1분기 생활인구 평균 증가율이 2.6%임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높은 기록이다. 광주전남 16개 군 평균(2.9%)보다도 높다.

방문객 특성으로는 휴일과 오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접 지역인 광주시와 나주, 전주, 정읍, 담양, 고창 등 주로 근거리에서 당일 나들이 일정으로 방문했다.

1인당 카드 사용액(14만 7000원)과 평균 체류일수(4.5일), 평균 숙박일수(5.9일)는 인근 지역에 비해 높은 추세를 보였다. 여름철 카드 사



장성문화예술회관을 찾은 사람들 사진

/장성군 제공

용 비중은 운송 및 교통이 30~40%를 차지하고, 음식점이 22~23%대를 차지했다. 지역 특화음식 개발에 주력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 및 오후 시간대에 생활인구가 집중된다는 점을 활용해 주말장, 당일형 소비 콘텐츠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다. 장성군은 나들이

형 방문 수요를 체류형 관광으로 묶을 수 있도록 숙박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는 생활인구 증가율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음식, 관광,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고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